

#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

2026. 6. 16.

한 국 은 행

# 1 금리 및 주가

-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
  - 다만 미-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(6.8일 3.94% → 6.12일 3.81%, 3년물 기준)
- 주요 단기시장금리(3개월)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
- 코스피는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, 외국인 차익실현 수요 등으로 높은 변동성\*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경기 호황, 기업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

\* 자세한 내용은 <참고 1> 개인 레버리지 주식투자 현황 및 평가를 참조

## 시장금리 및 주가

(기말기준, %, %p)

	24.12월말	25.12월말	26.3월말	4월말 (A)	5월말	6.12일 (B)	B - A
■ 국고채(3년)	2.60	2.95	3.55	3.60	3.73	3.81	+21
■ 국고채(10년)	2.86	3.39	3.88	3.92	4.07	4.20	+28
■ 미국채(10년)	4.57	4.17	4.32	4.37	4.44	4.48	+11
■ 회사채(3년, AA-) <sup>1)</sup>	3.28	3.46	4.18	4.25	4.34	4.40	+15
■ 회사채(3년, A-) <sup>1)</sup>	4.28	4.59	5.29	5.35	5.45	5.51	+16
■ 회사채(3년, BBB+) <sup>1)</sup>	6.64	6.88	7.57	7.62	7.73	7.78	+16
■ 통안증권(91일) <sup>1)</sup>	2.96	2.41	2.57	2.58	2.64	2.66	+8
■ 은행채(3개월) <sup>1)</sup>	3.34	2.81	2.84	2.76	2.85	2.94	+18
■ CD(91일)	3.39	2.81	2.82	2.81	2.86	2.92	+11
■ CP(A1, 91일)	3.58	3.30	3.13	3.08	3.07	3.12	+4
■ KOFR(익일물) <sup>2)</sup>	3.06	2.55	2.53	2.51	2.53	2.54	+3
■ 코스피	2,399	4,214	5,052	6,599	8,476	8,124	+23.1(%)
■ 코스닥	678	925	1,052	1,192	1,075	1,029	-13.7(%)

주: 1) 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

2) KOFR(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, 기간중 평균(26.6월은 6.1~11일 기준)

## 2 가계대출

-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, 주가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확대 (4월 +3.7조원 → 5월 +9.4조원)
  - 주택관련대출(+5.4조원 → +4.0조원)은 최근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량 증가, 既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수요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
  - 기타대출(-1.7조원 → +5.3조원)은 개인의 대규모 주식투자와 5월(가정의 달)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큰 폭 증가 전환

### 금융권 가계대출<sup>1)</sup> 증감

(조원)

	2024년		2025년		2026년				26.5월말 잔액
	1~5월	5월	1~5월	5월	1~5월	3월	4월	5월	
▪ 금융권(A+B)	3.6	5.3	15.2	6.0	21.0	3.5	3.7	<b>9.4</b>	1,720.5
· 주택관련대출	18.5	5.7	23.2	5.8	19.5	3.0	5.4	<b>4.0</b>	1,145.3
· 기타대출	-14.8	-0.4	-7.9	0.3	1.5	0.5	-1.7	<b>5.3</b>	574.3
▪ 은행(A)	14.5	6.0	14.3	5.2	8.1	0.5	2.1	<b>6.9</b>	1,181.8
· 주택관련대출	20.3	5.7	15.5	4.1	5.6	-0.0	2.7	<b>3.2</b>	940.8
(개별주담대)	21.8	5.0	15.6	4.3	10.6	1.4	2.6	<b>2.8</b>	581.1
(집단대출)	-0.6	-0.0	-3.6	-0.7	-2.9	-1.0	0.8	<b>1.0</b>	195.2
(전세대출)	-0.9	0.7	3.5	0.5	-2.1	-0.4	-0.6	<b>-0.6</b>	164.4
· 기타대출	-5.6	0.3	-1.1	1.1	2.5	0.5	-0.6	<b>3.7</b>	240.2
(신용대출)	-3.8	0.4	-0.5	0.9	1.5	0.3	-0.7	<b>3.1</b>	160.5
▪ 비은행(B)	-11.0	-0.6	0.9	0.8	12.9	3.1	1.6	<b>2.4</b>	538.7
· 주택관련대출	-1.8	0.1	7.8	1.6	13.9	3.0	2.7	<b>0.8</b>	204.6
· 기타대출	-9.2	-0.7	-6.8	-0.8	-1.0	0.0	-1.1	<b>1.6</b>	334.1

주: 1)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(은행채원) 정책대출 포함, 주택도시기금(자체채원) 미포함  
 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기금

### 3 기업 자금조달

- 5월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  
(26.4월 +10.7조원 → 5월 +10.6조원; 25.5월 +8.0조원)
  - 중소기업대출(+5.7조원 → +5.4조원)은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등을 위한 기업여신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당폭 증가
  - 대기업대출(+5.0조원 → +5.2조원)은 은행들의 대출 영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
-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 등으로 은행 대출 등 대체 조달 수단을 활용하면서 순상환 지속(-3.9조원 → -1.1조원)
  - CP·단기사채(+4.9조원 → -2.1조원)는 은행 대출을 통한 상환 등으로 순상환 전환하였으며, 주식(+0.4조원 → +1.4조원)은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규모 확대

#### 기업 자금조달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024		2025		2026			26.5월말 잔액	
	1~5월	5월	1~5월	5월	1~5월	3월	4월		
■ 은행 기업대출(원화) <sup>1)</sup>	43.8	6.9	31.5	8.0	44.4	7.8	10.7	1,408.3	
(대 기업)	20.2	1.1	17.8	5.4	22.1	3.4	5.0	317.1	
(중소기업)	23.7	5.8	13.7	2.6	22.3	4.5	5.7	1,091.2	
<중소법인>	20.1	5.1	12.6	2.4	19.4	3.8	4.9	630.1	
<개인사업자>	3.5	0.8	1.1	0.2	2.9	0.7	0.8	461.2	
■ 회사채 순발행 <sup>2)</sup>	4.5	-1.5	6.7	-0.4	-11.5	-0.3	-3.9	-1.1	..
■ CP·단기사채 순발행 <sup>3)</sup>	5.3	1.4	8.2	-0.2	10.2	-3.0	4.9	-2.1	63.3
■ 주식 발행 <sup>4)</sup>	3.6	0.2	4.3	1.8	2.4	0.4	0.4	1.4	..

주: 1) 예금은행(은행신탁 포함) 기준, 금융업 대출 및 일부 정책자금 대출(농축수산자금) 제외  
 2) 공모회사채 기준(ABS 제외, P-CBO 포함)    3) 일반기업 기준  
 4)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합계

## 4 금융기관 수신

### □ 5월 은행 수신은 큰 폭 증가 전환

(26.4월 -6.8조원 → 5월 +48.8조원; 25.5월 +20.2조원)

- 수시입출식예금(-18.8조원 → +32.8조원)은 가계자금 유출에도 일부 대기업을 단기간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큰 폭 증가 전환
- 정기예금(+4.7조원 → +15.8조원)은 가계예금 인출에도 대출재원 마련 및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법인자금 유치 등으로 증가폭 확대

### □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

(26.4월 +99.6조원 → 5월 +86.4조원; 25.5월 +25.2조원)

- 주식형펀드(+55.7조원 → +58.8조원)\*는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하였으며, 기타펀드(+12.9조원 → +21.0조원)도 파생형펀드(+10.2조원 → +14.7조원)를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

\* 5월중 국내외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, 신규 투자자금 유입(7.6조원)도 지속

- MMF(+24.5조원 → +1.8조원)는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

### 주요 금융기관 수신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024		2025		2026			26.5월말 잔액	
	1~5월	5월	1~5월	5월	1~5월	3월	4월		
■ 은행 <sup>1)</sup>	31.8	25.0	-1.9	20.2	59.0	20.5	-6.8	<b>48.8</b>	2,593.7
(수시입출식 <sup>2)</sup> )	-17.9	-1.2	-20.7	7.0	29.8	25.8	-18.8	<b>32.8</b>	1,024.7
(정기예금)	36.8	13.9	20.6	19.2	25.7	-4.4	4.7	<b>15.8</b>	1,087.3
(은행채)	16.2	5.8	-6.6	-3.2	6.9	-0.3	-1.4	<b>2.8</b>	348.0
(C D)	1.5	1.6	2.3	-2.8	-0.4	0.9	6.2	<b>-0.8</b>	62.0
■ 자산운용사 <sup>3)</sup>	85.8	17.6	127.9	25.2	297.4	-29.1	99.6	<b>86.4</b>	1,580.4
(MMF)	33.6	6.3	54.3	8.1	60.1	-4.7	24.5	<b>1.8</b>	253.6
<법 인>	31.8	5.7	53.3	8.2	59.4	-5.2	23.8	<b>2.5</b>	231.2
(채권형)	16.7	3.5	37.0	10.2	3.5	-6.1	3.6	<b>1.9</b>	217.2
(주식형)	9.2	1.4	14.5	4.5	166.8	-18.8	55.7	<b>58.8</b>	375.4
(혼합형)	3.2	0.5	1.0	0.1	10.4	1.7	2.9	<b>2.9</b>	44.4
(기타펀드 <sup>4)</sup> )	23.1	5.8	21.1	2.3	56.7	-1.1	12.9	<b>21.0</b>	689.8

주: 1) 은행·중앙정부·비거주자예금 제외      2)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 
 3) 증권사 사모펀드 포함. 평가액이 반영된 순자산총액(NAV) 기준의 설정원본 기준  
 4) 파생상품·부동산·재간접·특별자산·혼합자산펀드

<참고 1>

## 개인 레버리지 주식투자 현황 및 평가

### 1. 개인 레버리지 주식투자 현황

- 개인 레버리지 주식투자(신용융자, 신용미수, 증권담보대출, 스타크론의 합계로 정의)규모가 증권사의 중장기(통상 90~180일) 신용·대출상품인 신용융자, 증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

<주식 관련 신용·대출상품 비교>

구 분	신용융자	신용미수	증권담보대출	스타크론
대출 주체	증권사	증권사	증권사	여전사, 온투업 등
대출 성격	(신용)주식매입자금	(신용)결제대금외상	(대출)주식·채권 담보	(대출)주식 담보
담보유지비율 <sup>1)</sup>	140%	매수주식 담보	140%	120%
대출 만기 <sup>1)</sup>	90~180일(연장가능)	3일(연장불가)	90~180일(연장가능)	6개월(연장가능)

주: 1) 금융기관 및 고객별 일부조건 상이

자료: 각 증권사 등, 금융투자협회

- 레버리지 주식투자 규모는 시가총액 및 투자대기자금 대비로는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통화량 대비 비율은 상승
- 주식시장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신용융자잔고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\*는 빠른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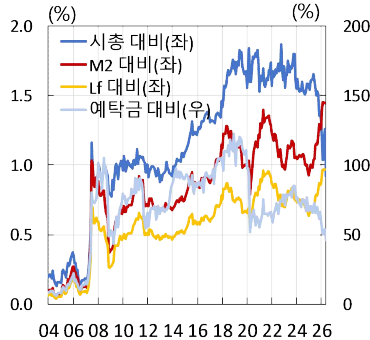
\* '25년말 주요국 신용융자잔고 증가율(yoy, %) : 한국 72.5, 미국 36.3, 중국 36.0, 일본 21.0, 대만 4.8

**개인 레버리지 주식투자규모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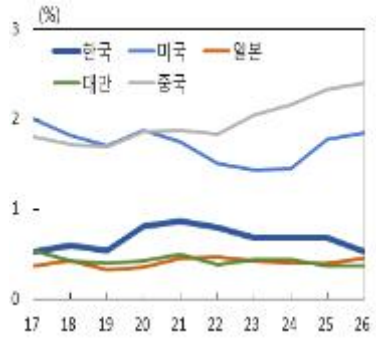
주: 1) 스타크론은 3월말 기준  
자료: 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

**레버리지 주식투자<sup>1)</sup> 비율**



주: 1) 스타크론 제외  
자료: 한국은행, 금융투자협회, 인포맥스

**주요국 시총 대비 신용융자잔고**



주: 1) 한국은 6월 이외는 3월말 기준  
자료: WFE, FINRA, JPX, TWSE, Refinitiv

### 2. 주요 특징

- (레버리지 매수 업종·종목 쏠림) 반도체, 자동차(로봇) 등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증가
  - 최근 영업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, 퍼지컬 AI 투자 확대 등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높은 전력 인프라, 로봇 관련 업종 등에 대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확대

- (반대매매를 통한 변동성 증폭) 주가 조정시 담보유지비율(통상 140%) 하회 계획의 반대매매를 통한 강제 청산매물 등의 일시 출회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
  -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누적은 주가 급락기에 ① 대규모 반대 및 강제매매 뿐만 아니라 ② 외국인·기관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, ③ 선물·옵션 포지션 청산 등이 가세하면서 주가 하방압력을 일시에 가중
- (개인 신용공여 제한적 증가) 한편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신용공여한도(자기자본 100%),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실적 관리 필요성 등으로 개인 신용공여 증가세는 둔화
  - 여전사, 온투업 등에서 취급하는 주식담보대출인 스탭론은 증권사의 신용공여비율 조절에 대한 우회수요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작은 편

### 3. 평 가

- 레버리지 주식투자 규모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수익추구성향이 강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
  - 특히 ETF 수요, 외국인 보유비중 등이 일부 섹터 및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 레버리지 투자 쏠림현상도 심화
  - 다만 증권사 등 신용공여기관은 주가 급락시 담보로 확보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임의상환을 진행하므로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
- 주가 급등 과정에서 FOMO(Fear Of Missing Out)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후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추격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매수·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증권사 차입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 및 온투업 등 연계금융을 활용한 넓은 범위의 레버리지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

주요 업종별<sup>1)</sup> 신용용자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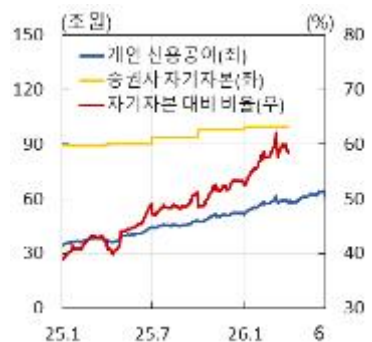
주 1) Fnguide 산업 분류(27개) 기준  
자료: Dataguide

주요 종목별 신용용자잔고



주 1) 전체 대비 3종목 합계  
자료: 인포맥스, 금융투자협회

증권사 자본<sup>1)</sup> 대비 개인신용공여



주 1) 직전분기 자기자본 합계금액 기준  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